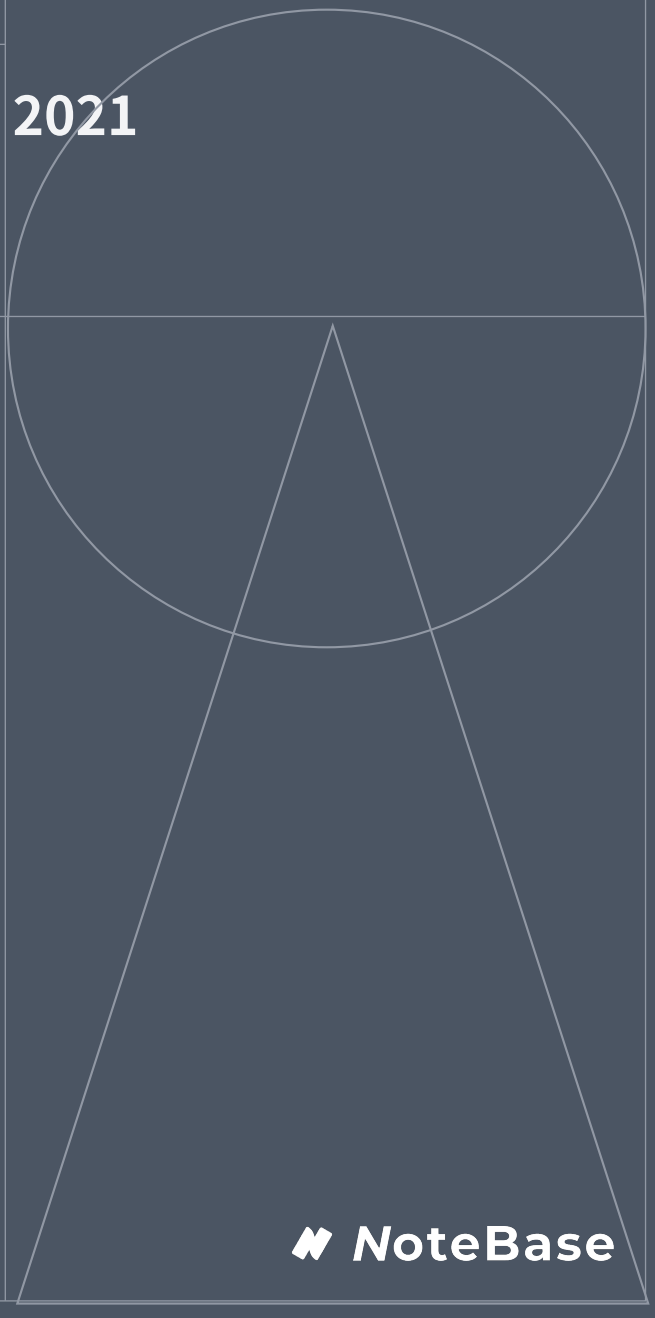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1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1

문 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③ 오뚝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④ 찻간(車間), 홧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量'과 '欄'이 한자어 뒤에 붙으면 **'량·란'**으로,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붙으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양·난'**으로 적는다. 따라서 '흡입량·정답란'과 '구름양·칼럼난'은 앞말의 어종에 맞게 적은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꼭지점'은 **'꼭짓점'**으로 고쳐야 한다. 고유어 '꼭지'와 한자어 '점(點)'이 결합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돌나물', '페트병', '낚시꾼'은 맞는 표기이다.

② O: 양을 나타내는 '量'과 구분된 지면을 나타내는 '欄'은 **앞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외래어인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흡입(吸入)'과 '정답(正答)'은 한자어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흡입량', '정답란'으로 적는다. '구름'은 고유어이고 '칼럼'은 외래어이므로 뒤에 붙는 한자음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구름양', '칼럼난'으로 적는다.

③ X: '딱다구리'는 **'딱따구리'**로 고쳐야 한다. 이 새의 표준어는 둘째 음절의 첫소리를 'ㄸ'으로 적는 '딱따구리'이다. '오뚝이'는 '오뚝하다'의 어근 '오뚝'을 밝혀 적은 말이며, '싸라기'와 '법석'도 맞는 표기이다.

④ X: '홧병(火病)'은 **'화병'**으로 고쳐야 한다.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며, '화병'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께 제시된 '찻간(車間)', '셋방(貰房)', '곳간(庫間)'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한자어이므로 맞는 표기이다.

NoteBase

문 2. ㉠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 싼다.

①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② 사람들은 봇짐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
③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를 들고 있다.
④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라.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싸다'는 **물건을 종이나 천 등으로 둘러 감추다**라는 뜻이다. 책을 보퉁이로 감싼다는 의미의 '싼'도 같은 뜻으로 쓰였다.

공통 해설

이 문항은 '싸다'가 문장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에서는 선물을 포장지로 둘러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의미는 **물건을 종이나 천 등으로 둘러 감추는 것**이다.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에서도 책을 천으로 둘러 감추었다는 뜻이므로 이 기준에 들어맞는다. 감싸는 재료가 포장지에서 천으로 바뀌어도, 물건을 둘러 감춘다는 의미는 같다.

반면 '안채를 겹겹이 싸고'는 사람들이 건물 주위를 에워싼다는 뜻이다. '봇짐을 싸고'와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라'는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짐을 꾸린다**는 뜻이다. 각각 에워싸는 행위와 짐을 준비하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물건을 포장지나 천으로 둘러 감추는 ㉠의 의미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3.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책이 잘 읽힌다'는 읽는 대상인 책을 주어로 삼은 자연스러운 피동 표현이다. 앞 절의 '날씨가 선선해지다'와도 의미상 잘 이어져 **문장 성분의 호응과 절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선지별 해설

① O: '날씨가'는 '선선해지다'와, '책이'는 '잘 읽힌다'와 호응한다. '읽히다'는 '읽다'의 피동사이므로 **읽는 대상인 책을 주어로** 삼을 수 있다. 연결 어미 '-니'는 날씨가 선선해진 것을 책이 잘 읽히는 이유나 근거로 제시한다.

② X: 이 문항에서는 '속독으로 읽는 것'을 의미가 겹치는 표현으로 보아 다듬는다. '속독'에 이미 책 등을 빠르게 읽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속독하는 것' 또는 '빠르게 읽는 것'**으로 표현하면 간결하다. 수정하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빠르게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가 된다. 다만 '속독으로'를 읽는 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이 표현을 언제나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X: '직접 찾기로'에 찾는 대상을 밝혀 두 절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 절의 '내가'는 주어이고, **'책임자가'는 '되다'의 보어**이다. 이 보어가 뒤의 '찾다'에 필요한 목적어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책임자를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로 고치면, 자신이 책임자가 되는 대신 책임자를 찾는다는 뜻이 명확해진다. 문맥상 대상이 분명하면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를 밝혀 쓰는 편이 명료하다.

④ X: 두 활동을 나란히 표현하면서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의 짜임이 달라 표현의 균형이 고르지 않다. **'홍보하는 일'과 '진행하는 일'로 짜임을 맞추면** 두 활동의 병렬 관계가 선명해진다.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로 다듬을 수 있다. 다만 원문의 두 표현은 모두 명사구이므로, 내부 짜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문항의 공식 채점에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과 절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①을 고른다. ②와 ④의 설명은 간결성과 병렬 표현의 균형에 관한 것이며, 두 문장을 모두 엄격한 의미의 비문으로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빛 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빛 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자료를 인용하여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④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글은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을 빛 공해에 포함하지만, **빛이 누출되는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누출되는 빛이 생활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빛 공해의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장에서 빛 공해를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대상의 뜻과 범위를 밝혔으므로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② X: 첫 문장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은 빛 공해에 해당하는 빛의 특성을 밝힌 표현이다. **인공조명의 빛이 왜 누출되는지**에 관한 원인이나 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한 것으로 고쳐 이해해야 한다.

③ O: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라고 설명한다. **외부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빛 공해 실태를 제시한 것이다.

④ O: 마지막 문장에서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을 제시한다. 이는 빛 공해가 인간과 환경에 주는 **악영향의 예**를 구체적으로 든 것이다.

NoteBase

문 5.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 지은 것은?

용언의 불규칙활용은 크게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 ㉠: 걸음이 빠름, ㉡: 꽃이 노람
② ㉠: 잔치를 치름, ㉡: 공부를 함
③ ㉠: 라면이 불음, ㉡: 합격을 바람
④ ㉠: 우물물을 품, ㉡: 목적지에 이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품'의 기본형 '푸다'는 '퍼'로 활용할 때 **어간의 'ㅜ'가 탈락**한다. '목적지에 이름'의 '이르다'는 '이르러'로 활용할 때 어간은 유지되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대응 관계 해설

어간은 활용할 때 중심 의미를 유지하는 부분이고, 어미는 그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품', '이름' 같은 명사형에서는 불규칙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본형과 '-아/-어'가 결합한 활용형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우물물을 품'의 기본형은 '푸다'이다. '푸- + -어 → 퍼'에서 어간의 'ㅜ'만 탈락하고 어미 '-어'는 그대로이므로 **'우' 불규칙활용**에 해당한다. '걸음이 빠름'의 '빠르다'는 '빨라'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르' 불규칙활용을 한다. '라면이 불음'의 '붇다'도 '붇- + -어 → 불어'에서 어간 끝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활용을 한다. 반면 '잔치를 치름'의 '치르다'는 '치러'에서 'ㅡ'가 탈락하지만, 이는 일정한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ㅡ' 탈락이므로 불규칙활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목적지에 이름'의 기본형은 '도달하다'라는 뜻의 '이르다'이다. '이르- + -어 → 이르러'에서 어간 '이르-'는 유지되고 어미 '-어'만 '-러'로 바뀌므로 **'러' 불규칙활용**에 해당한다. '공부를 함'의 '하다'도 '하- + -어 → 하여'에서 어미가 '-여'로 바뀌는 '여' 불규칙활용을 한다. 반면 '꽃이 노람'의 '노랗다'는 '노래'에서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 '-아'도 '-애'로 바뀌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ㅎ' 불규칙활용에 해당한다. '합격을 바람'의 '바라다'는 '바라- + -아 → 바라'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우물물을 품', ㉡에 '목적지에 이름'을 대응시킨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6.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ㅅ블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ᅀᅵ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ᄒᆞᆫ 아으 滿春 ᄃᆞᆯ욋고지여
ᄂᆞᄆᆡ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ᄆᆞᆫ 녯 나ᄅᆞᆯ 닛고신뎌 아으 動動다리
— 작자 미상, 「動動」에서 —

① ㉠은 '켠'을 의미한다.
② ㉡은 '모습을'을 의미한다.
③ ㉢은 '잊어'를 의미한다.
④ ㉣은 '무심하구나'를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므슴다'는 **'무슨 까닭으로' 또는 '어찌하여'**라는 뜻이다. 임이 자신을 잊은 까닭을 묻는 말이므로, '무심하구나'라는 풀이와는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현'은 '불을 켜다'라는 뜻의 옛말 '혀다'가 활용한 형태로, **'켠'**에 해당한다. '노피 현 등불'은 '높이 켠 등불'이라는 뜻이며, 그 등불에 임을 빗대고 있다.

② O: ㉡은 **'모습을'**이라는 뜻이다. 해당 구절은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로 풀이되며,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한다.

③ O: ㉢의 '니저'는 '잊다'라는 뜻의 옛말 '닞다'가 활용한 형태로, '잊어'에 해당한다. 앞의 '아니'와 함께 **'잊지 않고'**라는 의미를 이루어, 꾀꼬리가 사월을 잊지 않고 찾아왔음을 나타낸다.

④ X: ㉣의 '므슴다'는 '무심하구나'가 아니라 **'무슨 까닭으로', '어찌하여'**라는 뜻이다. 뒤의 구절과 이어서 '무슨 까닭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로 풀이한다. 때를 잊지 않고 돌아온 꾀꼬리와 달리 자신을 잊은 임을 원망하는 정서는 드러나지만, 단어 자체가 '무심하구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7.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그분은 냉혹한 현실(現室)을 잘 견뎌 냈다.

② 첫 손님을 야박(野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③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 근성(謹性)이 느껴진다.

④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債用)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야박하다'는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야박'은 **野薄**으로 쓴다. '들 야(野)'와 '엷을 박(薄)'을 사용한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를 뜻하며, **現實**로 쓴다. '실'은 '집 실(室)'이 아니라 '열매 실(實)'이다. 따라서 '現室'을 '現實'로 고쳐야 한다.

② O: '야박하다'는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는 뜻이다. '야박'은 '들 야(野)'와 '엷을 박(薄)'을 써서 **野薄**으로 표기하므로,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낸 문장의 한자 표기가 적절하다.

③ X: '근성'은 타고난 성질을 뜻하며, **根性**으로 쓴다. '근'은 '삼갈 근(謹)'이 아니라 '뿌리 근(根)'이다. 따라서 '謹性'을 '根性'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문장의 '채용'은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것을 뜻하므로 **採用**으로 쓴다. '채'는 '빚 채(債)'가 아니라 '캘 채(採)'이다. 따라서 '債用'을 '採用'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8. 다음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 남한과 북한의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를 분석한 결과, … (중략) … 앞으로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이로써 최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 박사님의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 박사: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로 구성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공통의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만들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A: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회자는 발표 순서와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토의 진행을 맡고 있다**. 발표자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거나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은 언어 연구와 관련된 **학술적인 주제**이다. 최 교수와 정 박사가 각자의 세부 주제를 차례로 발표하고, 이후 청중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② X: 사회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발표자를 소개하며, 발표 순서와 질의응답 시간을 안내한다. 두 발표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내놓거나 사회자가 그 이견을 조정하는 장면은 없다. 따라서 사회자의 역할은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다.

③ O: 최 교수는 남북한 어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 언어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정 박사는 언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례를 소개한다. 두 발표자 모두 **자신의 견해와 관련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④ O: 청중 A는 두 발표의 내용을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요약하여 확인한다. 이어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을 물으므로, **발표 내용에 바탕을 둔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NoteBase

문 9. ㉠~㉣은 '공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을 적용한 B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① ㉠ A: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었어."
B: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② ㉡ A: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B: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③ ㉢ A: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 가니?"
B: "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 크게 말해 줄래?"

④ ㉣ A: "가원아, 경희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사주는 것은 어때?"
B: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경희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B는 잘 듣지 못한 원인을 '네 목소리가 작아서'라고 하여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을 적용하려면 듣지 못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방식이다. B는 디자인 시안이 멋있다는 칭찬에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답하여 **자신을 낮추고** 있으므로 ㉠을 적용한 대답이다.

② O: ㉡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B는 늦어서 미안해하는 A에게 쇼핑하며 기다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기다림이 힘들지 않았다는 뜻을 전하여 **늦은 상대방의 미안함과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③ X: ㉢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상대방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B는 '네 목소리가 작아서'라고 하여 잘 듣지 못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에 맞게 고치려면 '내가 집중해서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처럼 자신의 듣는 태도를 원인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 O: ㉣은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인정한 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다. B는 '그거 좋은 생각이네'라고 **상대방의 제안을 먼저 인정**한다. 이어서 경희의 취향을 잘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NoteBase

문 10.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으나, 공공 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이제 민주주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 버린 것이다.

①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②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
③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④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하버마스는 미디어가 **공익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면 시민들이 공적 쟁점을 논의할 공간이 줄어든다고 보았다. 수익성 위주의 플랫폼과 콘텐츠가 늘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한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부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둘째 문단은 살롱의 공공 토론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했으며, 원칙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고 설명한다.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는 내용은 없다. 살롱은 공개적 토론을 통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② X: 지문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공익 광고를 증가시켰다는 내용이 없다. 셋째 문단에서 광고는 **조작과 통제를 통한 여론 형성**의 예로 제시된다. 따라서 지문의 광고에 관한 설명은 공익 광고의 증가가 아니라, 상업적 이해관계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약화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③ X: 셋째 문단은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이 공공 영역을 공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미디어와 국제 사회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미디어가 발달해도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는 단정은 지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발달이 **상업화와 결합하면 공공 영역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문의 설명이다.

④ O: 마지막 문단은 상업화된 미디어가 광고 수입에 의존하여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든다. 수익성 위주의 플랫폼과 콘텐츠가 늘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한 사례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11.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 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 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 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을 설명한 뒤, '다만'으로 **산지의 경보 기준**을 덧붙인다. 이후 '그런데'로 눈의 피해로 화제를 전환하고, '이뿐만 아니라'로 **피해의 범위를 확대**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 → ㉡ → ㉢ → ㉠ → ㉤

㉣: 첫 문장이 대설의 뜻을 설명하므로,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가 이를 이어 받아 주의보의 기준을 제시한다.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5 cm 이상으로 예상될 때라는 내용을 먼저 놓아 기상특보의 기준에 관한 설명을 시작한다.

㉡: '또한'은 앞의 주의보 기준에 **경보 기준을 추가**하는 말이다. 주의보에 이어 24시간 신적설이 20 cm 이상으로 예상될 때라는 경보 기준을 제시하면 두 특보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다만'은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경보 기준에 **산지에 적용되는 예외**를 덧붙인다.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cm 이상으로 예상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는 내용이므로, 경보를 설명한 ㉡ 바로 뒤에 놓는다.

㉠: '그런데'를 통해 앞의 특보 기준 설명에서 **눈이 초래하는 피해**로 화제를 전환한다. 한 시간 안에 눈이 5 cm 이상 쌓여 도심 교통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 '이뿐만 아니라'의 '이'는 앞에서 설명한 도심 교통 마비를 가리킨다. 운송·유통·관광·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으로 **영향의 범위를 넓히므로** 교통 피해를 설명한 ㉠ 뒤에 놓는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① 영어의 '쌀(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②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③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④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개념은 떠올리지만 명칭은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고 내용과 언어 표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언어와 사고의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어의 'rice'에 대응하는 대상을 우리말에서는 '모', '벼', '쌀', '밥' 등으로 구분한다는 사례이다. 생장이나 가공·조리 상태에 따른 차이를 **서로 다른 어휘로 세분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에 대상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O: 산과 물, 보행 신호의 녹색등에 모두 '파랗다'라는 표현을 쓴다. 서로 다른 색감을 **하나의 색채 표현으로 묶어 인식**하는 사례로, 언어 표현과 색을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사고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X: 사물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데도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개념의 인식과 명칭의 회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언어와 사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개념을 생각하는 일과 그 개념을 말로 표현하는 일이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사례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작용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

④ O: 같은 수박을 '박'과 연결하는지, '멜론'과 연결하는지에 따라 명칭과 분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례이다. 대상의 이름에 **그 대상을 어느 범주에 넣어 이해하는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 준다. 이는 언어적 분류에 관한 설명이며 생물학적 분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변지의가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뜻을 물었더니,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때마침 이날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기에 그 나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뿌리를 북돋우고 줄기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 …(중략)…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듯 진실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고, 줄기를 바로잡듯 부지런히 실천하며 수양하고, 진액이 오르듯 독서에 힘쓰고, 가지와 잎이 돋아나듯 널리 보고 들으며 두루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헤아려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문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서사
② 분류
③ 비유
④ 대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마음을 닦고 독서와 견문을 쌓는 과정을 **나무를 가꾸어 꽃을 피우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 추상적인 문장 공부의 원리를 구체적인 나무의 성장 과정으로 드러낸 비유이다.

핵심 풀이

비유는 설명하려는 대상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글은 **문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과 나무를 기르는 과정**을 대응시킨다. 뿌리를 북돋는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 일에, 줄기를 바로잡는 일은 실천과 수양에, 진액이 오르는 것은 독서에, 가지와 잎이 돋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일에 대응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좋은 글을 쓰는 것을 나무에 꽃이 피는 것에 빗대어, 훌륭한 문장을 쓰려면 내면의 수양과 지식·경험의 축적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첫머리에는 변지의가 찾아온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하는 서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가르침을 전하게 된 계기이며, 글의 중심은 **문장 공부의 원리를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는 데** 있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누지 않으므로 분류가 아니며, 문장 공부와 나무 기르기의 차이점을 부각하지 않으므로 대조도 아니다. 두 대상의 유사한 관계를 이용한 비유가 주된 서술 방식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이 두 언어의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하는 반면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음운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해 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②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③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④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소리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얼마나 규칙적인가**이다. 한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일정하여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일수록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째 문단에서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부분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소리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표기를 보고 발음을 얼마나 일정하게 알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② O: 둘째 문단에 따르면 영어 사용자와 이탈리아어 사용자는 모두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다만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영어에는 규칙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예외가 많아, 암기해 둔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③ O: 첫째 문단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은 언어의 예로 든다. 이탈리아어는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규칙적**이므로, 의미를 모르는 새로운 단어도 표기를 보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다양하고 예외가 많은 영어보다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④ O: 첫째 문단에 따르면 스페인어는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인 반면, 영어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 등의 예외**가 많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다양하다. 따라서 영어는 스페인어보다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둘째 문단에서도 영어 사용자가 규칙만 적용하기보다 암기한 예외들을 떠올린다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15. (가) ~ (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ᄂᆞ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즉도 ᄒᆞ다마ᄂᆞᆫ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워ᄒᆞᄂᆞ이다

(나) 동짓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다)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ᄌᆞ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라) 농암(籠巖)에 올라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이 변ᄒᆞᆫ들 산천이ᄯᅳᆫ 가샐가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 某丘)이 어제 본 ᄃᆞᆺᄒᆞ예라

①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라)는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의 '노안이 유명'은 늙었어도 **눈이 여전히 밝다**는 뜻이다. 변함없는 산천을 어제 본 듯 친근하게 느끼는 데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 드러나므로,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유자를 품는 행위는 육적이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귤을 품었다는 효도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탐스러운 감을 보면서도 가져다드리면 **반겨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한다. 고사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O: (나)의 '서리서리'와 '구뷔구뷔'는 무엇을 감아 두거나 펼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적 표현이다. 긴 겨울밤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는 날 펼치겠다는 상상은 **홀로 있는 밤은 줄이고 임과 함께하는 밤은 늘리고 싶은** 마음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한다.

③ O: (다)는 청산과 유수, 청풍과 명월을 짝지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되풀이함으로써 대구와 반복을 활용한다. 화자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병 없는 몸으로 **근심 없이 늙어 가겠다**고 말한다. 자연에 머물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④ X: (라)의 '노안이 유명'은 늙은 눈이 여전히 밝다는 뜻으로, 신체적 쇠약이나 무력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다. 세상일은 변해도 산천은 변하지 않는다는 대조는 나타나지만, 화자는 눈앞의 물과 언덕을 어제 본 듯 친근하게 느낀다. 따라서 이 작품은 **변함없는 자연을 대하는 친밀감과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겸허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렸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큼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 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 이상, 「권태」에서 —

①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②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글쓴이의 무료함을 표현하고 있다.

④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가 먹이를 되씹는 행동을 '지상 최대의 권태자'의 모습으로 해석한 데에는 **글쓴이 자신의 권태와 고독이 투사**되어 있다. 소의 생리적 행동에 자신의 심리를 겹쳐 읽은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의 '반추'는 먹었던 것을 다시 게워 씹는 생리적 행동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를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만큼 권태로운 존재의 행동으로 해석한다. 이어 자신의 '고독'과 '사색의 반추'를 언급하므로, **소의 행동에 자신의 권태와 고독을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X: 글쓴이는 소를 관찰하며 현재 자신의 고독과 사색에 관해 생각한다. **과거의 삶을 회상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는 내용은 없다.** 이 글의 중심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소를 매개로 드러내는 현재의 내면이다.

③ X: 소 곁 풀밭에 가서 눕는 행동은 제시되지만, 이후에는 그곳에서 소를 관찰하고 생각을 이어 간다. 무료함과 권태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소의 반추에 대한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

④ X: 글쓴이는 소의 권태와 자신의 고독을 견주며 자신도 '사색의 반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색이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이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은 아니다.** 소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권태와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서 '황거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괭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중략)…

경찰은 발포를 - 다행히 공포였지만 -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집행도 일시 중단되었었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집행 방해에다, 산주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 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사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 김정한, 「산거족」에서 -

① 同病相憐
② 束手無策
③ 自家撞着
④ 輾轉反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황거칠은 식수를 지키려고 저항했지만, 연행된 뒤에는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산수도를 포기한다. 이처럼 **상황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 어찌하지 못하는 처지**에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어울린다.

NoteBase

핵심 풀이

황거칠은 식수가 끊기는 것을 막으려다가 경찰에 연행된다. 모든 죄를 혼자 떠맡으려는 시도마저 실패하고,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본 끝에 석방 조건인 각서를 받아들인다. 결국 산수도를 포기했다는 결말에서 **저항하려 해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처지**가 드러난다.

①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함을 이른다. 이 성어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에 초점이 있으므로, 황거칠이 강제집행을 막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束手無策(속수무책): 손이 묶인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하지 못함을 뜻한다. 황거칠은 산수도를 지키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석방되려면 더는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단이 막힌 상황**이 이 성어의 의미에 부합한다.

③ 自家撞着(자가당착):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됨을 뜻한다. 황거칠이 저항하다가 각서를 쓴 것은 구금과 석방 조건 때문에 뜻을 굽힌 결과이다. **압박에 따른 선택의 변화**를 곧바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로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輾轉反側(전전반측): 걱정이나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임을 뜻한다. 황거칠이 가족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황거칠의 처지에 가장 적절한 성어는 ② ‘속수무책’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쉬임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 조병화, 「나무의 철학」 —

① 문답법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살아가며 겪는 아픔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이를 나무의 모습과 연결하여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문답법은 스스로 묻고 답하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 시의 '한두 가지겠는가'는 응답을 구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또한 특정한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기보다, '살아가노라면'과 '사노라면'을 통해 삶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아픔과 그에 대처하는 태도를 말한다.

② X: 반어는 실제로 전하려는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가슴 아픈 일', '가슴 상하는 일'은 삶의 아픔을 **직접 드러낸 표현**이므로 반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슬픔 자체를 표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살아가는 태도를 제시한다.

③ X: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에는 나무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부여하는 의인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목가적이라는 것은 전원생활의 평화롭고 소박한 분위기를 뜻한다. 이 시의 나무는 평화로운 전원 현실을 보여주기보다 **시련 속에서도 자기 삶을 지켜 나가는 자세**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④ O: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와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삶의 아픔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한다. 이처럼 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명한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이 설의법이다.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으며 '보다 높은 곳으로' 자라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의 시련을 견디며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NoteBase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그 민족 역사의 누적일 뿐 아니라 그 누적된 민족사의 정수로서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니, 진실로 살아 있는 민족적 신상(神像)은 이를 두고 달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誠力)과 정혼(精魂)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 무비(無比)의 보(寶)가 된 자이다. 그러므로 국보 문화재는 곧 민족 전체의 것이요,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민족의 힘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
④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셰익스피어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은 그가 남긴 문화적 성취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문화재가 민족의 정신을 담고 민족을 결속하는 힘이 된다는 글의 주장에 어울린다.

공통 해설

㉠ 뒤의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빈칸의 역할을 알려 준다. 앞부분에서는 문화재를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 설명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민족의 문화적 성취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에서 셰익스피어는 그가 남긴 문학과 문화적 성취를 대표한다.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표현은 그 문화적 가치를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문화적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문화재가 민족의 정신과 힘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①은 구르는 돌과 이끼의 관계로 활동이나 변화에 관한 태도를 나타내고, ②는 지식과 지혜의 전달 가능성을 구별하며, ③은 직접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표현들은 모두 **민족의 문화적 성취가 지닌 가치**를 보여 주는 사례라는 빈칸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의 개념은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인 '사과', '개', '나무'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더 무거움', '더 짧음' 등과 같은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보다 설명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분류 개념처럼 자연의 사실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상 A의 무게가 대상 B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면, 대상 B의 무게가 대상 A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무거움' 같은 비교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량 개념은 비교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에는 두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험적 규칙과 물리량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량 개념은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② '용(龍)'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③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호랑나비'는 '나비'보다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다. 지문에서는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대상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고 했으므로, '정보량이 적다'는 '정보량이 많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문단에 따르면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대상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호랑나비'라고 하면 '나비'에 속한다는 것에 더해 어떤 종류의 나비인지까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는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많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기 위해 현실에 적용할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문단의 '유니콘'처럼 **분명한 정의**를 통해 대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용'도 이러한 정의가 가능하다면 현실의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③ O: '꽃'과 '고양이'는 대상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분류 개념**이다. 반면 비교 개념은 '더 무거움', '더 짧음'처럼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A가 B보다 무거우면 B가 A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한다. '꽃'과 '고양이'는 이러한 비교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O: 3문단에 따르면 정량 개념은 물리량을 측정하여 만들어지며, 측정에는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cm'나 'kg' 같은 단위를 정하면 길이나 질량을 수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단위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은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